

‘국회의 시간’ 마무리… 文-이준석, 빠르면 내달 초 만남

2차 추경·상임위 배분 협상 종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협의중
백신·소상공인 지원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월 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마치는 등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 마무리되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당 대표들과 만남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1일 당대표에 취임한 뒤 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을 위해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월 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무 협상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당·정·정 협의회를 가동시키고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지금 국회의 상황을 고려

한다면, 다음 주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각 당의 사정이 또 있는 만큼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협치를 위해 (문 대통령이 야당에 현안 관련) 논의를 하자고 하면 제안이나 방법, 시기 등을 막론하고 당연히 응할 생각”이라고 화답했

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만남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 및 백신 수급 등 논의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청와대도 당시 여 대표 제안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경우 청와대, 정부, 국회가 소통 채널로 만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별도 회동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개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청와대 말대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문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만남이 이뤄지면 당면한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공급,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

된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열리면 협치와 함께 최근 국회의 2차 추경 처리에 감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성과 등에 대해서도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공유하고, 관련한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이 성사되면 시기는 8월 초가 유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이 당초 예정한 8월 초 휴가 일정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했기 때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8월 둘째 주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언제 되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휴가 일정에 따라 8월 첫째 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산업부 추경 288억 확정... 에너지 바우처 증액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신규 마련
‘조선 생산기술 인력양성’ 증액 편성

취약계층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8억원이 24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최근 해상운송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이 신규로 마련됐고, 업황이 회복세에 있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증액 편성됐다.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는 선박·



지난 21일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선·화주 상생 간담회가 열렸다. /뉴시스

항공 등 국제운송비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물류비까지 지원하며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신청은 전용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이 선정된다.

또, 최근 선박수주량 증가에 따른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분야 채용연계형 교육인원을 기존 600명에서 120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훈련수당도 신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하절기 냉·난방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증액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바우처 지급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8만7000 가구에 냉·난방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윤석열 캠프에 국민의힘 주요인사 합류

이학재·함경우·박민식 등 참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꾸린 대선캠프에 25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합류했다. 대선캠프 공식 명칭도 ‘국민 캠프’로 확정했다. 윤석열 국민캠프의 김병민 신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의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의 선거캠프’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전 총장 국민캠프에는 이학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상근 정무특보로,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상근 정부보좌역으로 각각 합류했다.

캠프 상근 대외협력특보에는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임명됐다. 청년 특보에는 이미 캠프에서 활동하는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임명됐다. 캠프 종합상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캠프명 ‘국민캠프’와 캠프 인사 구성을 발표했다. /뉴시스

실 총괄부실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기획실장은 박민식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캠프 대변인단에도 이두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병민 신임 대변인은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당협위원장 출신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에 기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대선 출마

1호 공약으로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원희룡 지사는 1호 공약으로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00조원을 지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이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형태의 비대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청년분야에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존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생존 기반을 위협받는 국민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며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원 지사는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50조원을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매년 10조원씩 5년간 예산 편성 변경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다시 만드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홍 기자

연일 폭염에 오후 2~5시 건설현장 공사 중지 권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폭염에 취약한 옥외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우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동방·한진 등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제재

과징금 총 1억7700만원 부과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동방과 한진이 입찰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한진·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 단가를 투찰하는데, 담합에 참여한 3개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투찰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담합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에 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